

I. 서 론

I. 서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조성하는 환경이 청소년의 가치 및 규범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동안 각종 매체로부터 수동적인 수신자의 위치에 있었던 매체수용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 또는 이용 능력을 습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즉, ‘미디어를 바로 알고 이를 제대로 이용, 활용하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교육’ 곧 미디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은 교육 자체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주장하는 원론 강조 수준을 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매체 및 사회환경에 알맞은 미디어교육 추진 모델을 개발하는데 소홀한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및 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용성있는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진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미디어교육 선진국의 기존 모델 분석을 기초로 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바 있는 다양한 미디어교육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상황에 맞는 미디어교육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왜 던져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점검되어야 한다.

예컨대, 미디어교육을 통합된 주제로 다뤄야 하는가, 아니면 분리된 주제로 다뤄야 하는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제3의 수준

중 어느 수준에 맞추어 도입해야 할 것인가? 중앙 통제식 커리큘럼인가 아니면 개별 학교 중심이어야 하는가? 어떤 미디어교육 패러다임의 적용이 보다 바람직한가? 그리고 미디어교육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이다.¹⁾

그동안 한국에서의 미디어교육은 전반적으로 교육계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겨우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소규모형태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정치 사회적 개방의 물결과 함께 미디어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려져 있어 미디어교육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일고있는 상태이다. 2000년 4월 공포된 새로운 방송법에는 아예 공적 자금 형태인 방송발전기금을 미디어교육 관련 단체나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즉, 적어도 사회적 여론환기 차원에서는 미디어교육이 어느 정도 한국사회의 중요한 논제로 등장해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디어교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논의들이 대부분 아전인수격인 해석으로 미디어교육의 본질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²⁾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미디어교육의 목적, 패러다임,

- 1) 한국적 미디어교육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이러한 질문들은 그동안 주로 한국미디어교육학회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제시 형식으로 꾸준히 던져지고 논의되었으나 체계적인 이론적 논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형 미디어교육의 효율적인 추진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교육을 '미디어 제작교육', '전직 언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재교육', '방송모니터운동 등 언론수용자운동, '시청각교육' 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 단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미디어교육의 본질 면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커리큘럼, 프로그램 개발, 현장교육, 협조적 활동, 실천을 위한 행동계획 등으로 나누어 한국의 매체 및 학교, 사회환경에 알맞는 추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미디어교육의 목적

II. 미디어교육의 목적

각 국 미디어교육의 다양한 목적들이 한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미디어교육의 다양한 목표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오스트리아는 교육적 수단을 통해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미디어교육을 채택하였다.³⁾ 또한 영국 미디어교육의 목적은 수용자의 식별력과 지적인 시청자세 확립에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안목 있는 수용자 양성과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한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비판적인 미디어 소비자 양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의 배양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해온 노르웨이와 미국에서는 미디어 이해 훈련과 텔레비전의 경험에 대한 반응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⁴⁾ 한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지배계급의 해계모나를 위한 선전 도구로서 간주되는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데 주력을 다해 왔으며, 브라질은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시민양성을 그리고 우루과이의 미디어교육 목표는 시청각 언어의 이해도를 높여 시청각적 인식능력을 발전시키고, 비판적 수용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⁵⁾ 인도

3) Thomas A. Bauer, "Austria: Theory and Practice of Media Education," UNESCO, ed. Media Education (1984), paris : UNESCO, p. 236.

4) Asle Gire Dahl, "Norway: Critical Consciousnes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Media Education (1984), 위의 책, p. 184.

5) Valerio Fuenzalida, "Media Education in Latin America:

에서는 지역민과 소외계층을 존중하는 철학과 문화배양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청소년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⁶⁾ 사회적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매체이용에 주력해온 싱가포르와 호주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은 매체에 대한 지식함양과 기술습득 및 올바른 수용자세 확립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미디어교육 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토대로 한국형 미디어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즉, 한국에서는 미디어교육을 올바른 미디어 환경 이해와 미디어의 역기능에 대비한 미디어 예방접종운동 및 미디어의 순기능 차원에서 지속적인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인간발전에 초점을 맞춘 창조적인 미디어의 선용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구축의 방법으로서 미디어교육을 주장하는 비판적인 소비자의 창출을 미디어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Developments 1970- 1990," in Bazalgette, Bevort, and Savino (1992), eds. New Directions : Media Education Worldwide. London : BFI, CLEMI, and UNESCO. p. 141.

6) UNESCO (1989), World Communication Report. Paris : Author, p. 233.

Ⅲ. 미디어교육 패러다임

III. 미디어교육 패러다임

미디어교육의 이론적 탐색 결과 적극적인 수용자에 대한 점중 접근법이 미디어교육의 초기 단계에 우세했다.⁷⁾ 그러나 점차 다양한 미디어교육 이론들이 여러 관련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곤 했지만 가장 좋은 단 하나의 접근법으로 어떤 문화적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지도적인(leading) 미디어교육 이론이란 있을 수 없다.

우선 미디어교육의 첫 번째 접근법은 전통적인 규범적 면역 점중 접근법이다. 맑시즘의 개념에 따르면 미디어교육의 비판적 측면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상황에 적용 가능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비판적인 시청은 거의 미디어교육과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영상해독(visual literacy) 프로그램은 텍스트분석을 통한 영상표현과 언어의 이해를 강조한다. 이 접근법은 프랑스와 라틴아메리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의 해석 전통은 미국, 영국, 호주의 커리큘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원리와 접근법이 미디어교육을 위해 가장 좋을 것인가? 때때로 미디어 해독 패러다임이나 비판적 시청 패러다임 및 점중이론적 패러다임은 행정부 관료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적 정체성 패러다임과 미디어의 독창적인 이용방법에 목표를 둔 패러다

7) James A. Anderson, The Theoretical Lineage of Critical Viewing Curricula, Journal of Communication, 30 (3), and also refer to the series of Communication Research Trends.

임이 미디어교육을 위한 미디어 캠페인을 흔쾌히 받아들이도록 언론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호소력이 있을 수도 있다. 한편 지구촌 시대에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또는 예술 패러다임으로 학계의 관심을 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만병통치식으로 어떤 상황에도 다 잘 맞는 접근법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여러 가지의 목적과 원리를 적용하는 결합접근법(combined approach)이 한국의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충분히 유연성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도구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정책과 전략을 수용할 유일한 정부당국이라는 사실 때문에 적어도 미디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관련된 정부 관리들을 설득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접종이론적 접근법은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같은 타입의 질문에 대한 가장 빠른 대답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출발시점에 가장 적절한 이론적 도구처럼 보인다. 정부 관료들은 미디어가 오직 오락매체라는 측면에서 잘못된 미디어 문화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으로 쉽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잘못된 미디어환경에 우리가 제대로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미디어는 마치 히드라(hydra)⁸⁾처럼 여러 개의 머리가 달린 괴물이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주의해야 한다. 한마디로 의식화 훈련교육(sensitization)인 셈이다. 미디어 환경을 잘 이해하여 일반대중이 선택적이고 식별력있으며 적극적인 수용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들이 미디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8) Jerry Mander, Four Arguments for the Elimination of Television.
New York : The Harvester Press, 1980

있는 성숙한 감각성을 계발하도록 해주어야 한다.⁹⁾ 동시에 그들이 미디어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서 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미디어 해독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일단 교육부에 의해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 적용이 승인되면, 기타 다른 형태의 패러다임을 상황과 단계에 따라 차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9) In the case of Australia, the idea is well suggested in 102 pages of The Creative Nation: The Commonwealth Cultural Policy. Canberra: The Australia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Arts, October 1994.

IV. 커리큘럼

1. 정부주도 대 비정부주도
2. 통합프로그램과 지역적 프로그램
3. 프로그램의 폭과 범위

IV. 커리큘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학교 커리큘럼에 미디어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일반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학교 정규교과과정을 확립시켜 왔다. 즉, 오스트리아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들은 교육부로부터 미디어교육을 기존 과목의 교차 커리큘럼적인 차원에서 통합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원칙적으로 이는 모든 과목에서 미디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스트리아, 영국 웨일즈와 이태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미디어교육을 필수적인 핵심 커리큘럼으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합동조사위원회는 영화연구를 통해 GCE 'O' Level Mode 3을 개발/확립하면서¹⁰⁾ 1972년에 영화연구를 학교 커리큘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미디어교육을 전체 교과커리큘럼의 계획 속에 포함시켰다. 또 스코틀랜드에서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미디어교육을 커리큘럼의 옵션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편 프랑스에서의 학교클럽과 청년단체 및 칠레의 일부 가톨릭 초등학교나 필리핀에서처럼 미디어교육과 밀접히 연관된 클럽활동을 포함하여 스코틀랜드의 영화학회가 주도하고 있는 비공식적 수준의 영화연구 등을 과외활동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편 교회가 미디어교육 촉진에 가장 적극적인 인도처럼 공식적인 학교 커리큘럼밖의 과외활동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또 노르웨이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미

10) J.A. Brown. Television Critical Viewing Skills Education : Major Media Literacy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Countries. Hillsdale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1, p. 57.

디어교육을 사회연구과목에 통합되어 부분적으로 의무화시키거나 예술 또는 모국어 교육과 특별선택과목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미국의 FWL은 독립된 과목이거나 언어예술,¹¹⁾ 사회연구 또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속에 통합시킨 과정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호주의 New South Wales에서 처럼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모든 학년에 걸쳐 사회학적으로 연관된 미디어 연구가 필수과목으로 되어있기도 하다.¹²⁾ 독일의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의 일부로서 사회연구에 의무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호주와 영국에서는 모든 과목의 교과과정에서 교차 커리큘럼적인 의무과정으로 되어 있다. 캐나다 퀘벡에서는 half course에 해당하는 2년에 걸친 미디어교육을 채택하고 있거나 몇 년에 걸친 half 코스로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에는 언어예술과정으로 통합되기도 한다.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7학년부터 13학년에 걸친 영어 커리큘럼의 미디어교육을 의무화했다. 게다가 한 학기나 두 학기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개별 선택과목이 있다. 싱가포르에서의 미디어교육은 학생들에게 미디어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과목속에 구축된 사회적 기술개발을 위한 결정적인 수단으로 파악되어진 다. 교차문화적 교육은 미학적 접근법과 함께 정규 커리큘럼에 연결되어있다. 독일과 빅토리아에서는 초/중등학교 수준,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수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사립학교, 칠레에서는 가톨릭학교, 호주의 Capital Territory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과정과 오스트리아와 호주에서처럼 전국수준

11) 위의 책, p. 253.

12) John Pungente, The Second Spring: Media Education in Canadas Secondary Schools,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al Communication, Vol. 22, No. 1, 1993, p. 47.

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대부분 대학들은 미디어교육 과정을 학위수여 수준에서 다음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즉,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미디어교육 단위, 4학년과 5학년에서 학업의 미디어교육 단위(Media education unit of work), IB(국제 바칼로레아)를 향한 지식이론의 구성요소에 대한 미디어연구 강의와 세미나에까지 적용시키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의 미디어 연구는 16세나 그 이상에 대한 교육증명서(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에서 처럼 공인된 주제로 확립되어 왔다. 영국 교육기관에서의 미디어 연구는 Post Graduate Certificate of Education Course의 첫해에 영어 연결 옵션(joint option)으로 되어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미디어교육의 적용시안을 다음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실용적인 제안을 도출해낼 수 있겠다.

1. 정부주도 대 비정부주도

외국의 미디어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미디어교육의 성공여부는 주로 정부의 관심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정부가 대중문화와 관련된 미디어 산업을 보조하며, 영국 정부는 미디어를 의식하는 부모, 교사와 미디어 종사자들을 선도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연방정부가 미디어교육의 가장 적당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도권을 갖는다.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그 지역의 비민주적인 정치적 상황 때문에 미디어교육은

교육기관과 사립기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그 결과 미디어교육 패러다임은 본질적으로 비판적인 반정부기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2. 통합 프로그램과 지역적 프로그램

한편, 다문화 국가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지역적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각 지역의 문화적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미디어교육을 위한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해 왔다. 또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미디어교육을 보조하지만 계획과 실행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전국 커리큘럼위원회가 미디어교육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의 통합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을 갖는다.

3. 프로그램의 폭과 범위

브라운¹³⁾에 따르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의 폭과 범위에 기초를 두고 평가할 수 있다. 폭이란 프로그램이 수용할 수 있는 분야와 관점의 다양성을 말한다. 반면에 범위는 그 프로그램의 이용가능성과 지속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미국에서 미디어교육은 체계적인 교육적 커리큘럼으로 정착

13) James A. Brown (1991), 앞의 책.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폭은 전체범위의 미디어교육이 영상(이미지/비주얼)미디어를 중심으로 한다는 면에서 좁은 것처럼 보인다. TAT(Television Awareness Training)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범위는 교육적 특성과 관점들이 실세계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것처럼 보인다.

호주의 커리큘럼 개발/발전과 교육자료/참고자료(references)에서 보여주듯이 고도로 전문화된 20년간의 활동과 함께 호주에서의 미디어교육의 폭과 범위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영국에서의 미디어세계는 학교커리큘럼의 전면적인 커리큘럼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진행되어 왔다. 사실 교사와 학생들은 미디어세계를 생산하는 전체과정에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기타 유럽 국가에서는 미디어교육에 대해 그들의 필요와 요구(혹은 수요)에 따라 그들 자신에 맞는 일련의 목적과 접근법을 개발해 왔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미디어교육은 정규적인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난한 계층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운동을 추진하는 산발적인 실험단계를 제외하고는 미디어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인도,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특히 미디어 독해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카테고리를 분석해 볼 때 한국형 미디어교육 추진 모델은 결국 정부주도의 통합미디어교육 모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에서 교육정책과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것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듯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의무적인 형태의 미디어교육 도입이 바람직하다.
- ② 적어도 시작단계에서는 지역프로그램이 아니라 전국적인 커리큘럼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
- ③ 교차 커리큘럼 차원이나 또는 일반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전국 모든 학교의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④ 프랑스와 펠리핀처럼 미디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비공식적인 과외 클럽활동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 ⑤ 미디어교육은 영국에서처럼 시험부과 과목(examinable subject)으로 채택될 수 있다.
- ⑥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을 과외교과 활동(extra-curricula activities)의 일부로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기존 교과목의 일부로 도입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사회교과과목의 일부), 세 번째 단계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독립된 한 학기 또는 그 이상 학기의 정규 과정으로 도입하고, 마지막 단계로 모든 과목들과 연계시킨 통합 교과과정(cross-the-board curriculum)으로 도입한다.
- ⑦ 재교육 과정은 새로운 멀티미디어 환경과 정보시대에 따른 새로운 시민정신을 위한 지향점에 목표를 둔다.
- ⑧ “미디어를 이용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과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교육”간에 균형되고, 통합된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 ⑨ 지식, 기술, 태도변화의 단계에 따른 특정 행동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⑩ 일기쓰기 프로그램, 비판적 매체보기 기술을 위한 훈련, 미디어 이해 프로그램 및 신문사/방송국 견학과 같은 실용적인 프로그램들은 학교 미디어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V.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V.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미디어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자료(teaching materials) 개발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칠레에서는 도시 젊은이들을 위한 TV Education Module, 부모와 선생님을 위한 ‘TV and Active Reception’,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TV-Parents-Children, 도시여성을 위한 TV-Women 등의 교수자료를 잘 개발해 왔다. 칠레는 또 체계적인 현장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냈다. “Media for Education: Television and Computing”은 학교교육에서 다룰 수 있도록 미디어환경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형태의 충격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초등학교를 위한 교수모델이 교사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필리핀에서는 Media Awareness Seminar 관련 자료가 PAME에 의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캐나다 온타리오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텍스트는 Media Literacy Resource Guide이다. TV, 영화, 라디오, 록 비디오를 포함한 대중음악, 사진술, 신문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포함하고 시청자 반응 및 매스미디어의 영향과 해석에 관련된 주요한 요소들을 간명하게 분석해주고 있다. Teacher’s Guide to Inside Television과 A Guide to Critical Viewing은 미국의 FWL이 개발했다. 아울러 Training Manual for Teaching Critical Viewing Skills와 일종의 Teachers Cue Cards도 미국의 SEDL이 개발해냈다. “The Polaroid Test”는 프랑스에서 7-8세 아이들을 위한 사진술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제작한 것으로 아이들

이 더 명확한 시각을 갖도록 가르치고, 자신이 창조한 이미지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¹⁴⁾ Aesthetic Study of Media Programs은 프랑스의 CDRP이 개발해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강조는 라디오 매체를 중심으로 한 "작은 미디어"¹⁵⁾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Mass Media Awareness and Discrimination Program"은 모든 미디어를 포함하고,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에 의해 사용되는 각종 기자재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에 있다. 교과과정은 미디어 개발을 위시한 미디어의 목적과 미디어 언어 이해 등과 같은 특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많은 학교가 1973년부터 미디어 연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왔다. 이 프로그램의 확장은 1978년에 초등학교에서 미디어 연구와 시각판단능력(visual literacy)을 가르치는 의도로 소개된 "Primedia"라는 프로젝트개발로 부터 이뤄졌다.¹⁶⁾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교사들이 적어도 기꺼이 자신들의 자유시간을 새롭게 배우고 실험하는 데 기여할 각오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한국에서 학교미디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비단계로써 교육부 관료는 물론 교장, 교감을 위시한 교사와 TAT(television awareness training)를 통한 학부모 및 각급 시

14) Marianne Gaudard and Oliver Theveniaut, "'The Polaroid Test: An Educational Action Project with Young Children,' in Bazalgette, Bevort, and Savino (1992), 앞의 책, pp.10-12.

15) UNESCO (1989), 앞의 책, p.236

16) 위의 책, p. 232.

청자단체를 이끌 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미디어 캠페인을 포함한 미디어교육 훈련 프로그래밍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공청회 과정을 거쳐 확정시켜야 한다. 교사훈련 기관과 교사 조직간의 상호협력으로 미디어교육 교사훈련을 이미 현존하는 훈련 프로그램들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¹⁷⁾

미디어 수용능력을 갖춘 교사들을 위해 언젠가 예비교육 또는 현장교육에서 그들이 다음과 같은 기회를 가질 것을 권한다.

- ① 스스로 미디어의 영향을 경험할 것.
- ②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을 이해하고 경험할 것.
- ③ 학생들과 함께 하는 미디어교육을 시작할 정책과 실천적 과정을 도입할 것.
- ④ 미디어 수용능력을 갖춘 교사가 될 것.
- ⑤ 미디어교육 과정을 시작할 것.
- ⑥ 미디어교육을 용이하게 할 학교 조건을 조직화할 것.
- ⑦ 미디어교육을 발전시키고 고무시키기 위한 주변 교사들과 협력할 것.

한편, 미디어교육은 학교관리와 교사훈련으로 통합시키려는 수많은 도전들과 연관되어 있다. 각급 학교체제와 개개인 교사들은 미디어교육의 가치를 믿어야 하고, 새로운 생각과 기술을 배

17) 위의 책, pp. 22-25

위야 하며, 후원기관과 연계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도로 학교와 대학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추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
- ② 입법단계에서 미디어교육을 활용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행정관료들을 재교육시킬 것
- ③ 혁신은 개인적인 과정임을 인식하도록 교사들을 훈련시킬 것. 변화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의 본성과 욕구에 호소한다.
- ④ 각급 학교와 대학에서 동기부여와 보상을 통한 교직원 개발 기회를 추구할 것.
- ⑤ 재원/후원체와의 연계를 꾀할 것.
- ⑥ 학계, 사회,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연관된 미디어교육을 규정하고 활용할 것.

오스트리아에서의 교육원리는 본질적으로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훈련에 주요 초점을 맞추어 왔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미디어교육은 지역 직장회 또는 지역 청소년 훈련원에 맡겨 둔다. 오스트리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들이 초등학교를 위한 교수모델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 집단을 형성하기도 했다. 영국의 런던대학소속 교육대학은 미디어교육을 위해 본질적으로 많은 양의 교사훈련을 제공하는 가장 활동적인 대학중 하나이다. 프랑스의 CLEMI는 미디어 과목에 관련한 교사훈련을 시키고, 미디어와 교육 체제간에 연계를 촉진한다. 아울러 국가적, 지역적인

차원에서 교사훈련과정을 조직하고 교사들을 위한 전문 저널을 발행한다.¹⁸⁾ 미국에서 FWL은 교사, 학부모 및 공동체의 장을 위한 훈련 workshop을 행한다. 노르웨이에서 미디어 교수법에 대한 1년 과정 프로그램이 1970년대 초반에 교육대학에 설립되었다. 가장 급진적인 지도 프로그램은 "Media Acknowledgement" 프로그램이다. 관련학교와 지역 대학간에 연결체로 조직된 야간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Media Acknowledgement 프로그램은 교육대학에 실행하는 교수법에 대한 1년 과정이다.

우루과이에서의 DENI계획은 1984년에 텔레비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부모들을 위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과정을 설립하였다. 이 과정의 주요 목적은 계획된 활동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텔레비전 보는 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¹⁹⁾

오스트리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들이 초등학교를 위한 교수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역 프로젝트 집단을 형성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미디어교육의 성공은 교육자 특히 미디어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 교사들의 조직인 ATOM(Australian Teachers of Media)에 기인한다. 그리고 영국에서의 Society of Film Teachers(1950)의 노력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18) Communication Research Trends, Vol.13, No.2, 1993. P.4

19) James Brown (1991), 앞의 책, p. 259.

VI. 현장교육(In-service Training)

1. 훈련 프로그램과 내용
2. Workshops
3. 교원연수원
4. 중앙교육연수원
5. 교사 연합체

VI. 현장교육 (In-service Training)

1. 훈련 프로그램과 내용

교사의 현장교육은 교육의 전문성과 질 향상 및 교수법의 질적 제고와 교사 직업의 바람직한 상을 정립시키고, 교사들 자신의 교육적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지향/ 산업지향 사회에 대비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현장교육은 여러 가지 범주로 제안할 수 있는데 즉, 일반훈련, 전문적 직업 훈련, 특수 훈련, 해외 훈련, Workshops 등이다.

자격증을 위한 훈련에 대한 요구는 보다 높은 단계로 승진하 고픈 욕구에 의해 초래된다. 훈련 프로그램은 초·중등 교사, 교감, 도서관원, 상담역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용한다. 이들은 지역별 교사훈련기관과 서울대학교 교육대학 부속 교육행정대학원 등에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훈련 현장프로그램은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학과 기술을 따라 잡기 위한 교육과 교수법에 확고한 이론적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교육대학 부속 초·중등 교사들을 위한 훈련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별 교사훈련기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전문직업훈련은 교육 연구와 훈련 및 지역 교사훈련센터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제공되어진다. 이들 훈련은 교장, 교감, 주임 교사, 교육 행정관, 새로 채용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수훈련은 국내외에 있는 교사훈련기관, 교육부의 후원 또는 조정에 의해 제공되는 오랜 기간(1년에서 2년) 동안의 현장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으로 소수의 초·중등 교사와 NGO차원의 각급 미디어교육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2. Workshops

언젠가 미디어교육 훈련을 받은 교사들과 함께 전국의 15개 교육청으로부터 선택된 15개의 전문학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들 학교는 국제적인 인터넷 시스템을 가진 컴퓨터 네트워크로 모두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미디어교육의 효율적 전개를 위해서는 워크숍을 통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유의깊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교원연수원

교원연수원의 설립은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의 관리하에 허가된다. 교원연수원은 이중체제를 형성한다. 중앙에는 세 종류의 교육원이 있다. 즉, 교육/연구/훈련 국가교육원, 한국교육대학 교원연수원, 서울대학교 교육대학 부속 교육행정대학원이 있고, 지역적으로는 교육청에 의해 관리되는 지방과 대도시에 14개 교원훈련연수원, 교육대학 부속 11개 초등교사연수원, 사범대 부속 16개 중등교사연수원이 있다.

동시에, 교육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공립, 사립 대학교에 교사연수원의 설립을 확대할 것이다. 1995년에 정부는 11개 사립대학의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 중등교사연수원의 설립을 허가했다.

부가적으로 교육부는 외국어, 무용, 음악, 미술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교원연수원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미디어교육이 바로 이런 공식적 연수과정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부의 보조적 기관의 하나로, 교육연구나 교육관 및 교사들의 훈련을 독점적으로 맡는 기관이다. 연수원은 교사와 교육부 직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장단과 지도 주임, 교육 연구자와 초등교육 연구자, 5급에서 7급까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들은 국가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확립시켜주고, 전문화와 직업성취의 능력을 개발시켜주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4년에 25개의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존재했고, 이를 통해 7,500명이 수혜를 받았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의 미디어교육은 국가기관을 통한 미디어 교육 실시라는 차원에서 미디어교육 제도화를 위한 필수적 과제일 수도 있다.

5. 교사 연합체

한국교사연합회와 한국사립중등학교 교장들의 모임은 교사들의 전문적인 단체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경제적 틀 안에서 교사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런 교사나 교장 등 교원 연합체 중심의 미디어교육은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매우 유용한 실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공립 초·중등 교장모임 등 다양한 교원 조직을 활용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VII. 학문적 토대와 도움 : 다양한 협조적 활동

1.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2. 한국미디어교육학회
3. 전국미디어교육교사연합회
4. Green/Net 캠페인
5. 교육부의 지원

VII. 학문적 토대와 도움 : 다양한 협조적 활동

한편, 각 국에서 종교 단체들의 도움은 매우 놀랄만하다. 캐나다 미디어 교육의 경우에는 예수회와 같은 종교 공동체의 협조가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미국도 역시 미디어 교육에 National Catholic Education Association, Protestant Media Action Research Center, Center for Media and Values²⁰⁾와 같은 종교 조직으로부터의 조직적 협조가 도움이 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교회와 활동단체, 대중교육 센터 및 사립조직에 의하여 미디어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디어교육은 교회와 사립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²¹⁾ 인도와 필리핀에서도 교회와 가톨릭 학교, 종교 조직에서 미디어교육을 활발하게 담당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 가운데서 유럽의 EAAME (European Association for Audiovisual Media Education)와 라틴 아메리카의 OCIC(Office Catholique International du Cinema et de l'Audiovisuel)는 대륙간 협조의 좋은 예이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미디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EAAME는 미디어교육을 시행하는 단체이다. EAAME는 유럽 수준에서 전문적인 시청각 미디어교육의 협동적 활동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되었고, 미디어 교육전문가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기능을 하고 있다. 1960년부터 OCIC의 라틴아메리카 사무국은 볼리비아, 브라

20)For details of projects conducted by these organizations, refer to James Brown (1991), 앞의 책

21)Valerio Fuenzalida, Latin American Experiences of Critical Awareness Training, Media Development, 1, 1991, p.14

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7개 국가에서 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화와 TV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다.²²⁾

특히 호주의 미디어교사협회(ATOM :Australian Teachers of Media)활동은 우리나라 청소년 대상 학교 미디어교육 추진 모델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겠다.²³⁾

한국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들과 조직들에서 미디어교육의 현실화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들 단체나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교육 추진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은 미디어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중대한 역할과 교육자료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진행중인 실험과 검증을 위하여 효율적인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2) UNESCO (1989), 앞의 책, p.236

23) 한국미디어교육학회(1999), '제3회 미디어교육전국대회 사례발표집' 참조

2. 한국미디어교육학회

한국미디어교육학회(KSME)는 1995년에 조직되고, 1997년 12월에 전국미디어교육교사연합회와 한국미디어교육학회가 공동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²⁴⁾ 한국미디어교육학회는 계속적으로 그 규모가 커질 것이고, 학문적으로나 연구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한다.

3. 전국미디어교육교사연합회

전국미디어교육교사연합회(K-TOM)는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교사 각각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느슨하게 1995년에 조직되어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되었다. 교사연합회의 첫 번째 공식적 회합은 미디어교육의 제1차 전국대회를 위한 계획과 함께 1997년 12월에 시작되었다.

4. Green/Net 캠페인

Green/Net 캠페인(한국일보)과 같은 각급 언론에 의한 캠페인은 뉴 미디어의 사용료가 비싼 시기에 뉴 미디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장려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운동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Green/Net는 이 캠페인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24) 1997년 12월 제1회 미디어교육전국대회를 공동개최하면서 두 단체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교와 조직을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Green/Net의 유용성은 미디어교육의 기본과 텔레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을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 캠페인은 교사들 뿐 아니라 교장과 교육부의 정책 담당자들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에게도 펼쳐질 것이다.

기술을 다루는데 유용한 연구와 활동을 전개할 모임체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Green/Net 연구라고 하는 협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Green/Net은 1996년 7월 한국일보에 의해 시작되어, 초, 중등 교사들을 돕고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적 텔레마틱과 텔레프로젝트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같은 해 3월에는 조선일보가 LG와 협력하여 지방 학교들을 위하여 인터넷 연결을 시작하였다. 미디어에 밝은 교사들이 적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인터넷의 장점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모른다는 것, 인터넷과 그 서비스에 대한 불충분함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초보교사들이 조직적 만남과 다른 교사들과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5. 교육부의 지원

교육부 지원은 정부와 각급 학교 당국간의 예비적 접촉을 시작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기술적인 준비를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 환경에서는 미디어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교육부의 역할은 결정적인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다.

VIII. 미디어교육 실천을 위한 행동계획

1. 적용
2. 학교에서의 멀티미디어교육
3. SLP-ME

VIII. 미디어교육 실천을 위한 행동계획

미디어교육의 실천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킬 때가 되면, 각급 학교는 존재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함과 동시에 공동체 표준과 우선순위를 토대로 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창조해야 한다. 학교 개혁은 지역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성공하고 기본적인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는 자료와 재료가 필요하다. 요약해 말하면, 미디어교육의 첫번째 단계는 미디어교육이 현존하는 교육의 목표를 보완하고, 교육학적 목표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음을 지역학교 교장들에게도 이해시킬 수 있는 주창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1. 적용 (Implementation)

어쩌면 몇 십년이 될 지도 모르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 교육 개혁의 씨가 자라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시작되어 완성이 될 때, 몇몇 과목을 제외한 미디어교육은 전 교과과정에 포함될 것이고 학제간 연구를 만들 것이다. 만약 미디어교육의 유용성이 제대로 자리매김 한다면 미디어교육은 모든 과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활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 ① 과목을 위한 자료를 위해 도서관을 설치한다
: 비디오, 관련 서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조직과 전문가들을 도와 줄 수 있다.
- ② 평가 분석틀 작성 및 활용 지도
- ③ 교사와 주변 사이트와의 연결
- ④ 변화를 우선시하고 소수의 것에 초점 맞추기
- ⑤ 부모에게 학생들의 작업을 예로 보여주고, 부모들을 가르칠 수 있는 행사를 공동체 내에서 포함시켜 완성시키기
- ⑥ 미디어 조직과의 연락분위기 조성
- ⑦ 캠퍼스에 적합한 교육분위기 조성
- ⑧ 평가와 평가방법의 개선
- ⑨ 미디어와 기술에 대한 폭 넓은 가이드라인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미디어가 수업에 많은 형태로 도움이 된다는 점, 예를 들어 교과서라든가 동기부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자기 표현과 창조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해준다. 미디어는 또한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넓게 해준다.

한편, 미디어교육의 시작이 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때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① 학생들을 미디어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초대한다.

- ② 학생들의 배움을 위하여 대안적인 길을 제공한다.
- ③ 교사들도 역시 배우는 주체라고 여긴다.
- ④ 교사들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 성장과 전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현대적 교실의 물리적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2. 학교에서의 멀티미디어 교육

1997년의 한국 교실은 교육부의 특별 재정지원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는데, 멀티미디어 학교교육으로 인해 교재, 영사 슬라이드, 비디오, OHP, VCR 등과 같은 미디어와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어디에나 있지만 각급 학교에서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다. 미래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미디어는 네트워킹과 멀티미디어를 더욱 많이 포함할 것인데 프린트, 오디오, 그래픽,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과 결합하여 존재할 것이다.

각급 학교는 교실에서의 멀티 미디어와 텔레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위한 도전에 점차적으로 응할 것이다. 현재의 대다수 교사를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는 교사들에게 컴퓨터와 텔레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컴퓨터와 한정된 전화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신문 캠페인과 미디어 산업으로부터

터의 재정적 지원은 멀티 미디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혁신적인 연구들을 학교안에서 가능케 하고, 이용하는 학교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보에 접근하고 다양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도록 새롭고 창조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학생들은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서로 대화를 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생각하고,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연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은 진보적인 차원에서 각급 학교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더욱 학생중심의 연구토대를 가져올 수 있고, 기존의 교사 중심의 교실보다 더욱 믿을 만한 도전과 발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은 학교의 시공간적 속박감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배움의 경험과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교육자와 학생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그들이 생산한 미디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잠재적 증대는 교사와 배우는 이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각급 학교는 새로운 기술적 울타리 안에서 교육적 환경의 부유함을 유용하게 선용하여 교육의 기회 어떻게 풍요롭게 할 것이며 적절한 교육의 질을 지킬 수 있겠는가?

3. A Sogang-Latrobe Project for Media Education (SLP-ME)²⁵⁾

SLP-ME는 외적 재정지원에 의해 가능할 것이고, 한국의 교육자들에게 미디어 환경 인식과 훈련을 장려할 것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연구로서의 프로젝트인 SLP-ME는 a) 미디어 교육을 초, 중등학교 수준에 맞춰 정규적인 과목으로 소개시킬 것이며, b) 초, 중등학교 교사 및 교장, 교감들로 하여금 미디어 교육이 교육의 멀티미디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훈련시킬 것이며, c) 교과목과 교재개발을 도모할 것이며, d) 멀티미디어 학교들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잠재적으로 미디어 인식과 기술만을 확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화 시대에 전국가적으로 미디어교육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교육부를 포함한 산업계의 재정적 지원하에 완벽한 활동 계획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프로젝트는 다양한 세월을 거쳐 완벽하게 우리의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결국 교과과정 및 교재개발과 교사 훈련 및 평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25) Chang Sup Choi, A Starategy for Introducing Media Education into the National Curriculum at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School Levels in South Korea, a thesis for Ph.D. degree at La Trobe University, 1998

IX. 결론 : 요약과 제언

1. 전략적 선택
2. 미디어교육을 위한 한국형
모델의 청사진
3. 미디어교육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
4. 결론

IX. 결론 : 요약과 제언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교사들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마련과 교과목 개발에 미디어교육의 도입을 공식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미디어교육 분석과 외국의 미디어교육 모델 분석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미디어교육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본 연구자가 몸담고 있는 서강대학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추진 모델을 제시하였다.

서강대학교는 1975년부터 필자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 도입에 앞장을 서왔으며, 현재는 언론대학원의 미디어교육 분야의 석사과정 개설을 위시해서 프랑스와의 공동 Crec-Avex 프로그램 및 정기/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각종 워크샵과 훈련, 심포지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기타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9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했을 뿐인데, 가톨릭 매스컴위원회와 YMCA, YWCA 등은 1980년대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각급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해왔다. 서강대는 오랜동안 한국에서의 미디어교육의 현실화를 꿈꿔오며, 중추적으로 한국에서의 미디어교육을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또 한편 서강대학교는 국회와 교육부의 영향력을 통해 미디어교육의 개념을 장려하는데 앞장섰으며, 몇 몇 일간 및 주간 신문과 TV방송국의 장/단기간에 걸친 전국적인 미디어교육 캠페인을 진행시켜 왔으며,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교사들의 훈련에도 적용시켜 왔다.

SSM-AME(Sogang Strategic Model for Approaching

Media Education: 서강대학 미디어교육 접근 전략) 모델은 미디어 환경적응교육과 미디어의 각종 역기능 예방접종교육 및 교육/생활현장에서의 다양한 미디어를 창조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교육을 초, 중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도입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SSM-AME는 서강대학교를 주축으로 하여(단,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조직도 이 틀에 따라 역할담당이 가능함) 10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에는 한국 초중고 정규 교과목에 미디어교육 교과과정이 도입되도록 하는 전략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를 위한 서강대의 역할은 각 단계별로 1) 기획 2) 환경조성 3) 계기마련 4) 상담 5) 훈련 6) 장려 7) 동원 8) 추진 9) 관리 10) 자극제로서의 10단계 과정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전략적 선택 (Strategic Options)

미디어교육을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통합되도록 소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연결고리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은 미디어교육 연구활동, 관련기관을 엮는 네트워크, 교사 훈련, 미디어교육 캠페인 전개와 실제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 실천이다.

첫째로 훈련 영역에서, 서강대는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적 자질을 갖춘 교사를 위한 pre-service training이고 두 번째 종류는 교사들로 하여금 더욱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더욱 심도깊은 연구를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네트워킹 영역에서는 호주와 스코틀랜드가 제공한 모델처럼 교사들의 조합이나 미디어현업과의 연계를 돕는 작업이다. 동시에, 미디어 전문가들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이들이 미디어교육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다.

매스 미디어 연구/출판활동을 통해 미디어교육 교사를 엮어 주고, 언론을 통한 미디어교육 캠페인의 전개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돕고, 미디어교사 훈련과 네트워킹, 캠페인, 실천 미디어교육 등 다섯 가지 전략적 선택은 연구활동자료를 통해 통합 정리해주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2. 미디어교육을 위한 한국형 모델의 청사진 : A Blueprint for a Korean Model

여러 문헌에서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미디어를 창조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두어야 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을 접하는 학생들은 미디어의 생산과정과 텍스트/이미지 및 이미지, 사운드 그래픽을 통합한 컴퓨터기술공학의 새로운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 수용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 해독 교과과정의 목적은 신문, TV, 컴퓨터, 예술 등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해독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며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적인 인간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Buckingham은 Vygotsky의 사상과 용어인 '어린이의 타고난 정신적 노력에 의해 발전되는 자연적 개념'과 '교수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과학적 개념'을 채택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맥락에서 미디어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미디어교육은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의식적이고 정교하게 일반 언어나 미디어 언어를 사용하고 사고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학적인 개념의 실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디어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어린이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거나 그들 자신의 텍스트를 '쓰도록'하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 교육은 거기에 덧붙여 그들 스스로 읽고 쓰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숙고하고 독자나 작가로서 그들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미디어교육은 불가분 미디어 내용의 분석과 생산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게 마련이다. 분석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언어와 상징, 도상, 이미지, 신호음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 미디어 메시지가 지배적인 사회질서와 담론을 위해 생산되고 조작되는 방식을 알게된다. 이러한 종류의 분석적인 행위를 통해 어린이들은 사실과 의견, 논리적/감정적 소구,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인 설명 및 이미지 등에 대한 성찰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제작을 함으로써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미디어와 관련된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거나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기 성

찰과 평가 및 분석에 기초해 전체의 제작 과정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추구하는 즉, 자신의 미디어 내용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적인 작업과 실제 제작이 전혀 별개의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속과 겉처럼 하나일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 두 행위는 전적으로 변증법적이며 순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흔히 매스터맨의 '비판적 자율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디어 교육의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행적인 비평'과 '비판적인 실행'간의 상호결합이 불가피하다.

미디어교육은 매우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어 교육기관, 지역사회, 종교단체 및 대중운동의 맥락속에서 실시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교사에 의해서만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문적인 미디어 종사자에 의해 운영되기도 한다. 미디어교육은 종종 별난 주제를 다루면서 미디어 종사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학부모와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디어 교육은 지리나 생물, 역사 등과 같은 기존 교과목의 가르침도 아니며 전문적인 미디어 종사자를 길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다. 미디어교육은 공식적인 교육과정 (초등, 중등)과 종교단체, 청소년 클럽, 각급 시청자 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WACC는 1984년 미디어 실무자와 트레이너 및 아시아 지역 커뮤니케이션 기관들이 참여한 2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다. 인간의 가치와 커뮤니케이션, 교육/ 훈련과 같은 주제를 결합해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려는 목표를 가졌다. 이어 또 다른 워크숍이 1986년 마닐라에서 열렸다. 여기에서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커리큘럼 개발을 재정립하고 커리

컬럼의 주된 요소들을 재점검하였다.

Bazalgette에 의해 도입된 미디어 교육의 핵심 개념들은 미디어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조화 시켜 나가고 있으며, 나아가 문화와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인접 분야에 잘 적용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핵심 개념은 여러 미디어간의 비교와 대조를 가능케 하며 매체간의 연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형 모델

한국에서의 미디어교육을 세계적 수준에 비교하자면, 현재 전국적이거나 지역적인 면 모두 공식적 교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정과 인식면에서도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 미디어교육의 발전은 일본이나 프랑스에서와 같이 언론산업에 의한 후원을 통한 소규모적 운영이라는 특성이 나타나거나, 필리핀과 같이 교회조직에 의한 비공식적인 후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국의 특색은 이제까지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교사들 개개인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한국에서의 미디어교육의 목표를 그 이론적 틀과 교과 과목, 교사 교육 및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요약/제시할 수 있겠다.

a) 목적 : 한국에서 우리 미디어교육의 첫번째 목표를 선별적이고 식별력을 가진 비판적인 미디어 소비자를 육성하는데 두

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들이 복잡한 오늘의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미디어 언어를 이해하고 알맞은 지식과 기술, 태도 습득을 통해 복합적인 오늘의 현대사회에서 현명한 판단력을 행사하는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b) 이론적 틀: 우리 현실에 맞는 최선의 미디어교육 접근을 위한 가장 좋은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비판적 접근 형태나 미디어 이해접근 방법 등 여러 형태의 이론적 접근틀이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문화부의 결심과 미디어교육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어쩌면 면역운동(innuculative approach paradigm)틀이 관료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최적의 설득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각급 생활현장에서 접근이 가능한 각종 미디어를 창조적으로 선용하도록 도울 수 있는 목표를 지향하는 Creative Use of Media 접근방법이 주변에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문화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학문적 영역에서 가장 흥미 있는 문화적 틀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만병통치적의 접근방법은 없고, 여러 가지 목적과 이론적 근거 및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융통성을 잘 살리는 미디어교육 접근방법을 개발함이 좋겠다.

c) 교과과목: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아직은 기본적으로 중앙 통제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특히 교육부를 중심으로 도입

을 시도하여 차츰 단계적으로 교육 지방자치제에 맞는 방향으로 미디어교육이 확대되어 가도록 권장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중하게 감안해야 한다.

- (1) 미디어교육은 적어도 초기단계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념이해의 폭이 넓어질 때까지 교육부에 의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도입시켜야 한다.
- (2) 전국적 교과과목을 위한 통합된 교과과목 프로그램을 개발함이 바람직하겠다. 아울러 미디어교육을 다른 과목들과의 연계를 통해 전국적인 정규 교과과목으로 합병시킨다.
- (3) 프랑스나 필리핀과 같이 비공식적인 특별활동과 미디어교육을 합쳐 기존의 전통적인 교과과목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야 한다.
- (4) 영국처럼 미디어교육이 시험을 부과하는 중요 과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 (5) 시작은 특별활동의 형태로 하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생활 과목처럼 이미 존재하는 교과과목의 일부로 다루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의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교과과목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과목과 연계해서 짜여지도록 한다.
- (6) 정보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시민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멀티 미디어 환경을 위하여 재교육을 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포함시킨다.

- (7) 확대된 교과과목은 미디어의 사용을 통한 프로그램(media in education)과 미디어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media)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 (8) 지식이나 기술을 통한 행동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특정한 행동목표(behavioral objectives)를 위한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9) 일기쓰기나 비판적 시각을 키우기 위한 훈련, 미디어 감상, 미디어산업 현장견학과 같은 실용적인 프로그램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3. 미디어교육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

각급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학교 교장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요구된다. 즉, 미디어교육이 교육적 목표에 얼마나 적합하며, 얼마나 옳은지, 그리고 현존하는 학교교육 목적에 어떻게 완벽하게 다가서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각급 학교는 현존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조사/분석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되며, 미래 공동체의 우선권과 표준에 기초하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각급 학교의 개혁은 지역적 수준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미디어교육에 맞는 자료개발과 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뒷받침이 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각급 학교는 교실 안에서의 멀티 미디어 활용과 텔레커뮤니

케이션 기술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교사들에게는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 경험을 더욱 축적시킬 수 있도록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또한 각급 학교는 새로운 컴퓨터와 이를 위한 더 많은 전화회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긍정적인 면은 미디어 산업이 다양한 혁신적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문 캠페인을 통해 각급 학교에 멀티미디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설을 보급하는데도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의 미디어교육 프로젝트는 공익성을 띤 재정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교육관계자들에게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들을 위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즉,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연구로서의 프로젝트는 a) 미디어 교육을 초, 중등학교 수준에 맞춰 정기적인 과목으로 소개시키는 과정을 앞당길 것이며, b) 초, 중등학교 교사 및 교장, 교감들로 하여금 미디어교육이 교육과정에서 멀티미디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이며, c) 교과목개발과 가르치기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며, d) 멀티미디어로 무장된 학교를 수적으로 늘리는데 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 이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각급 학교들간에 협동적 활동을 자극하여 전국적 규모의 프로젝트로 발전되도록 돕고, 중국에는 미디어 교과목의 발전을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교사훈련 및 평가작업과 연구에 유용하게 적용될 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올바른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재 전세계적 차원의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생각해 볼 때, 미디어교육은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교육은 어쩌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역기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내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희망적 대안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디어교육의 실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일은 전혀 별개의 일인 것이다. 미디어환경이 조성해 놓은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제반 문제들에 영향력 있게 다가설 수 있는 미디어교육을 위해 적절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함은 일면 하나의 지상명령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미디어 교육은 이미 시행되어 결과가 나온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하여 타산지석의 득을 볼 수 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모두 같은 상황일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의 성공이나 실패가 한국의 미디어교육 전문가들에게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데 귀중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다.

그 어떤 미디어교육도 가르칠 수 있고 제대로 훈련받은 교사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명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육적 전략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하고도 보편적인 목적을 적절히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각급 미디어교육 담당교사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고 자신들의 작업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성공적인 교육을 펼칠 수 있고, 동시에 학생들에게도 흥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교육의 발전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디어교육의 성공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각급 학교는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한다. 행정부, 사회-문화관련 조직, 미디어 소비자단체와 같은 조직과 협회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미디어교육은 정당한 교과과목으로 대접받아야 하며, pre-service 및 in-service 훈련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적당한 미디어교육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정부는 구조적 도움을 통해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틀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미디어교육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이의 실천이다. 미디어교육은 결코 마술이 아닌 현실적인 작업일 뿐이다.

참고문헌

- Alvarado, Manuel, and F. Ferguson. The Curriculum, Media Studies and Discursivity, Screen, 1983.
- Anderson, James A. The Theoretical Lineage of Critical Viewing Curricula,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IIX, No.3 (1980).
- Bauer, Thomas A. "Austria: Theory and Practice of Media Education," UNESCO, ed. Media Education. Paris: UNESCO, 1984.
- Bazalgette, Cary, ed. Primary Media Education: A Curriculum Statement.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1989.
- Bazalgette, Cary. Media Education, Teaching English in the National Curriculum Serie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91.
- Bazalgette, Cary, Evelyne Bevort, and Josiane Savino, eds. New Directions: Media Education Worldwide. London: BFI, CLEMI, and UNESCO, 1992.
- Belloni, Maria Luiza. Media Education: Urgent Mission for the School. Sao Bernardo do Campo: IMS, 1991.
- Brown, James A. Television Critical Viewing Skills Education: Major Media Literacy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Countries.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1.

- Buckingham, David. Children Talking Television: The Making of Television Literacy. London: The Falmer Press, 1993.
- Buckingham, David. Teaching About the Media The Media Studies Book. London: Routledge, 1991.
- Canavan, Kelvin B.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A Personal Perspective. Sydney: Catholic Education Office, 1980.
- Carpenter, L. Critical Television Viewing Skills: Fitting Them into the Curriculum Catholic Library World. Vol. VXIII, No.9 (1982).
- Choi, Chang. A Starategy for Introducing Media Education into the National Curriculum at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School Levels in South Korea. a thesis for Ph.D. degree at La Trobe University, 1998
- Considine, M. "Media and the Victorian Curriculum & Standards Framework: A Discussion Paper," ATOM: National Professional Development Project (1994).
- Fuenzalida, Valerio. "Media Education in Latin America: Developments 1970- 1990", in Manuel Alvarado, and Oliver Boyd-Barrett, eds. Media Education: An Introduction.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1992.
- Langham, Josephine. Teachers and Television: The IBA Educational Fellowship Scheme. London: John Libbey & Company, Ltd., 1990.
- Masterman, Len. Teaching the Media. London: Routledge, 1985.

- Masterman, Len. The Media Education Revolution,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al Communication Vol. IIXII, No.1 (1993).
- Moore, Ben. Media Education, The Media Studies Book. London: Routledge, 1991.
- Pungente, John J. "The Second Spring: Media Education in Canada's Secondary Schools,"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al Communication, Vol. IIXII, No. 1(1993).
- Pungente, John J., and William E. Biernatzki. Media Edu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Trends. in Quinn, James Brian. Strategies for Change: Logical Incrementalism. Homewood, IL: Richard D. Irwin, 1980.
- Schwartz, Tony. Media, the Second God. New York: Random House, 1981.
- UNESCO. Media Education. Paris: Author, 1984.
- 권음미, 미디어읽기(media literacy)를 위한 텍스트 접근법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1994, 2월)
- 김기태,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언론문화연구> 제6집, 1988
- _____, "미디어교육의 전망과 과제", 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주최<정보화 사회에서의 미디어교육> 세미나 발제문, 1996
- _____, "학교 미디어교육 실시를 위한 제언", <방송개발원 회보> 9월호, 1997
- _____, "사회단체 미디어교육의 평가 및 과제", 제1회 미디어교육전국대회 발제집, 1997
- _____, "신정부 출범과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실시방안", 미디어교육학회

- 주최 쟁점토론회 주제발표문, 1998
- 서울중등미디어교육연구회, <C.A교수 학습자료 미디어 바로알기, 바로보기>, 교과교육연구자료, 1996
- 서정숙, 미디어교육을 위한 시안연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년 2월)
- 서정숙 외, <미디어 교육의 실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7)
- 이강수, “능동적 미디어수용자론의 새로운 시각”, <현대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이론>, (서울:한길사, 1989)
- _____ “미디어 수용자론의 이론적 전개”. <미디어 수용자론의 전개와 방향>,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1989
- 차태근, “방송수용자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방송위원회 <放送研究> 가을호, 1986.
- 최선열, “비판적 텔레비전 시청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新聞學報> 24호, 1989.
- 최재식, <TV모니터반 : TV를 바로봐야 세상을 바로보죠>,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4)
- 최종옥,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 실시를 위한 실천과제”, 한국언론연구원 <신문과 방송> 5월호,
- 최창섭, “초, 중, 고교생을 위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 관훈클럽 <신문연구> 30호, 1980
- _____ <미디어 교육론>, (서울:문장, 1985)
- _____ <언어와 미디어환경>, (서울:성바오로출판사, 1989)
- _____ <인간과 미디어 환경-미디어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성바오로출판사, 1990)
- 한국미디어교육학회, <미디어교육전국대회 논문 및 사례발제집>, 제1회 (1997), 제2회(1998), 제3회(1999), 제4회(2000)